

스위스 섬유 무역 1.6% 감소

스위스 섬유연합회에서는 2010 년 스위스 텍스타일 및 의류 산업 무역은 전년에 비해 1.6%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(8 억 8 천 7 백만 유로). 스위스 섬유연합회 회장 Max Hungerbühler 에 의하면, 2010 년 4/4 분기의 텍스타일 수출이 다소 성장하였지만 2011 년 스위스 텍스타일 및 의류 산업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, 중동의 정치적 혼란 및 일본의 위기에 의해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이다.

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스위스 텍스타일 산업은 2010 년 1.9% 증가하여 6 억 7 천 7 백 유로이며 가먼트 산업은 10.2% 감소하여 2 억 1 천만 유로였다. 전체 수출이 7.5% 감소하여 24 억 5 천만 유로였으나, 스위스 텍스타일 수출은 4.1% 증가하여 12 억 9 천만 유로였다. 그러나, 가먼트 수출은 17.8% 감소하여 11 억 5 천만 유로였다.

전체적으로 스위스의 수입은 1.4% 감소하여 59 억 7 천만 유로였다. 의류 수입은 3.4% 감소하여 43 억 유로였으나, 텍스타일 수입은 3.8% 증가하여 16 억 7 천만 유로였다.

스위스 섬유연합회에 의하면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2% 증가하였다. 의류 분야에서 이태리로부터의 수입은 약 20% 감소하였으나 독일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동일하였다. 유럽연합은 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.

스위스 섬유연합회는 독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신흥 시장에 대한 새로운 판매처와 연결되어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.

♣ Textile Month International(Issue 3, 2011)